

작은도서관 분투기

그나라어린이도서관 박성원

새로운 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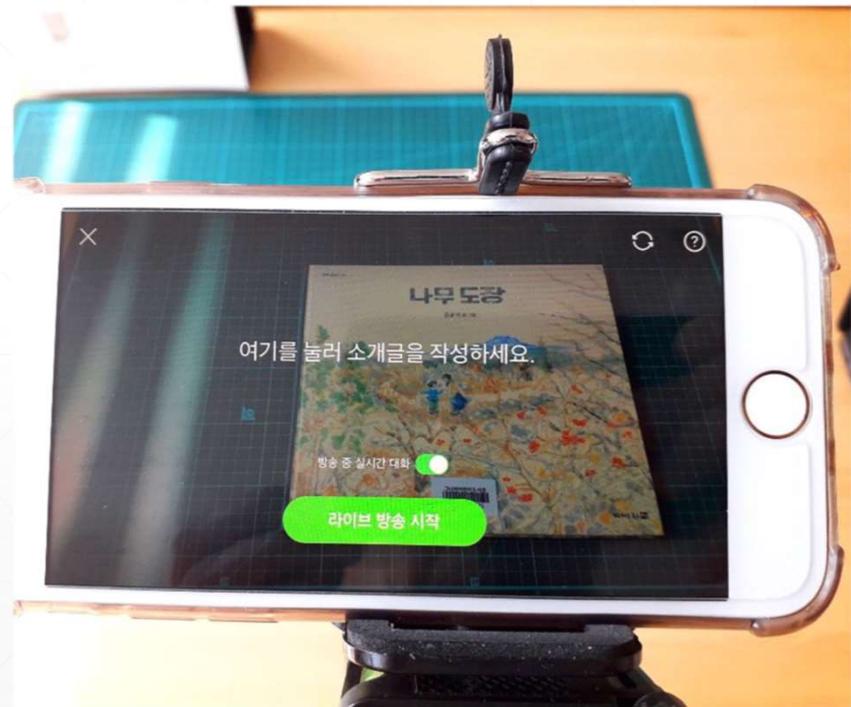
- 밴드 라이브에서 그림책 읽기
 - 비대면으로 책 배달
 - 재미있게 읽은 OO색 그림책 찾기
 - 밴드 라이브에서 인형극 및 강연
 - 자전거 타기
-

1. 밴드 라이브에서 그림책 읽기

- 2월 24일 ~ 5월 5일까지 72일간
매일 1권 그림책을 읽다.

“오후 2시면 아이들과 함께 라이브
방송을 들어요”

“엄마가 읽어 주는 것보다 아이가
더 좋아해요 ”



2. 비대면으로 책 배달

- 2월 25일 실시 (5권, 매일 신청 가능)
- 공공도서관 예약 대출 및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으로 점차 감소
- 부분 개관한 5월 6일부터는 월요일과 수요일만 지역을 나누어서 배달
- 6월 17일 수요일 마지막 배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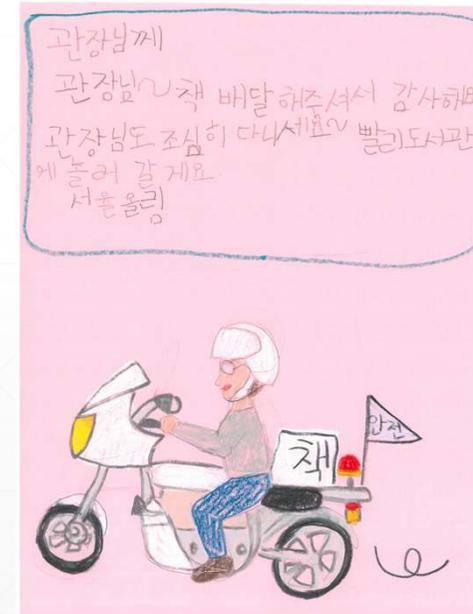


이용자 반응

책 배달 서비스 광고 후 응원 댓글



어린이의 손 편지



이용자 반응



책 소독



3. 재미있게 읽은 00색 그림책 찾기



-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소소하게 진행
- 노란색, 빨간색 2주간
- 추천해서 그림책을 선물

“평소 잘 안 보던 책을 찾아 보며,
예전에 아이들과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
발견하고 반가웠어요”

“이 기회에 책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”

이용자 반응



4. 밴드 라이브에서 인형극 및 강연

그레타책방에서 인형극 공연 (라이브)



내가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 (라이브)



'그림책, 길을 가다'



7월 13일 월요일 팔공산

- 지역 그림책 활동가를 모시고,
“내가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_
모디케이 저스타인” 야외 강연
- 밴드에서 라이브로 동시 진행 예정

5. 자전거 타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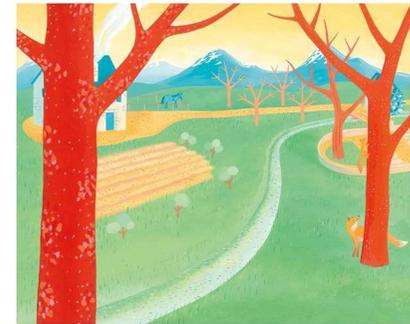
- 5월 6일부터 부분 개관.(대출, 반납)
- 화-금 11시~15시까지 운영
- 6월 1일 고학년 독서 모임 시작
- 북구청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
- 문화가 있는 날

- 늦은 오후 시간에 자전거를 탄다.

자전거? 그게 작은도서관에서 할 일이야?



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자전거를 타는 길이다.
그때의 시간은 마치 구름을 넘어가고, 바람을
따라다니는 듯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채워진다.



“하루하루는 다 다르지만 하나같이
아름답더라.”

코로나, 그럼에도

-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봉사(2월)
- 작은 일에도 기쁘게 반응해 준 이웃
- 기억하고 도와준 이들
- **그리움과 소중함**
- 어린이
- 그림책
- 마을

마을 반짝예술시장 (6월20일)



감사합니다.
